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¹³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피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¹⁵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4:13-15)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일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분명 이단이 틀림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단을 보호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먼저 지난주엔 그런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몇 가지,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신앙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천사들은 무척 놀란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단은 이처럼 천국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곧 가인과 같이 사랑과 신앙을 분리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리로 이단 여부를 판별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실 이게 주된 궁금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주님은 왜 이단인 가인을 보호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도 틀림없는 이단인 가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기까지 하시니 말입니다. 도대체 왜? 정말 이상합니다. 이단에 대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창4:15, AC.392-396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15절 본문의 속뜻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속뜻을 그 배경 설명을 곁들이며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비록 사랑과 신앙을 분리하는 가인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보호, 사람들이 이 신앙에 폭력 행사, 즉 뭔가를 섞거나 없애려 하는 걸 금하셨습니다. 그런 건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가인 신앙을 구별,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류는 결국 가인의 신앙으로 흐를 것이며,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가인의 신앙으로 인류를 구원하자! 즉 먼저 신앙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자 하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랑하기 때

문에 신앙하는 게 순서상 맞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라도 해서 인류로 하여금 체어리티의 삶을 살게 하자, 즉 신앙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한 다음 그 사랑으로 원래의 목적인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자 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천국과 지상에서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속 사람에게 허락되는 영원히 행복한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절 본문 풀이에 해당하는 글들 중 두 번째인 393번 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들의 속뜻 설명을 더 깊이 계속하기에 앞서 먼저 이 경우가 어떻게 신앙과 연결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고교회는 사랑의 신앙 말고는 그 어떤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심지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속한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적(天的, *celestial*)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그러나 인류는 이런 캐릭터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님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려 할 것이고, 그다음엔 그 신앙을 가지고 무슨 독립적인 일종의 교리화를 할 것이다 예견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들 사랑과 신앙은 실제로 분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식, 곧 신앙의 지식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체어리티를 받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지식이나 들음이 오고, 그다음 그걸 통해 체어리티, 즉 이웃을 향한 사랑 및 자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이때 이 체어리티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자는, 이런 식의 대안을 주님은 마련하신 것입니다.

태고교회 시절 그들에게 있었던 퍼셉션(*perception*, 천적 통찰력) 대신 이제 그 자리를 양심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은 신앙을 통해, 체어리티와 결합된 신앙을 통해 얻는 것인데요, 어떤 참된 것을 예전처럼 덕테이션으로 직관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이 참이라 하니, 말씀에서 주님이 참이라 하시니 참인 줄 아는, 그런 것입니다.

홍수 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캐릭터였으며, 주님 초림 후 첫 교회인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영적 천사들이 천적 천사들로부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393번 글의 내용, 즉 스페덴보리가 직접 쓴 배경 설명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천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은 두 가지 속성, 곧 선과 진리, 다른 말로는 사랑과 신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완전한 결합 상태가 주님의 신성이시며, 다른 말로 ‘결혼’ 상태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이 신성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신성 중 선, 즉 사랑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을 천적이라 하고, 진리, 즉 신앙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을 영적이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 중 특별히 천적인 게 더 잘 맞는 천사들을 천적 천사라 하고, 영적인 게 더 잘 맞는 천사들을 영적 천사라 하며, 그래서 천국은 두 나라, 천적 나라와 영적 나라, 이렇게 둘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4:15, AC.392-396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주님의 신성의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두 가지 속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햇별이 빛과 열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영과 육, 심장과 폐, 살과 피, 빵과 포도주, 가슴 신앙과 머리 신앙 등등입니다.

스베덴보리는 가인 신앙의 등장을 설명하기를, 본래 오직 사랑뿐이었던 태고교회, 신앙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태고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은 하는 사람들, 곧 사랑 따로, 신앙 따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스베덴보리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말씀, 곧 계시하신 것이지요. 덕테이션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신앙하는 게 다 들어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게 신앙인지도 몰랐던 태고교회, 특히 아담교회라 부르던 태초의 사람들... 지금도 천적 천국, 천적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천국, 그런 천사들입니다. 지상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부족한 대로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성 분도 요셉 라브르라든지 하는 분들이 되

겠습니다. 태고교회는 천국이 잠시 지상에 구현되었던 교회로서 아주 특별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하셨고, 이후 노아교회, 유대교회 및 현 기독교회를 거쳐 다시 주님의 통치로 이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가 바로 새 교회입니다.

이랬던 아담교회가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는 사람들, 곧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교회의 자녀들 중 그러나 여전히 사랑 안에 머물던 사람들은 아벨입니다. 교회의 두 자녀는 신앙과 체어리티인데 창세기 4장에서는 거기 나오는 이들 두 자녀를 각각 가인과 아벨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두 자녀, 신앙과 체어리티를 낳습니다. 교회가 낳는 자녀는 이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신앙까지 하던 아담교회에서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엉뚱한 것이었고, 정말 이상한 것이었는데, 이들 가인들은 그냥 일어난 것, 생겨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사랑과 신앙을 완전 분리, 결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국 체어리티를 소멸시켜 버리는 데 까지 나아갑니다. 그걸 가인이 아벨을 쳐죽였다 묘사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 4:8)

물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인을 보호하심입니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¹⁵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4:14-15)

주님은 누구의 의지를 강제로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물론 가인같은 사람들이 안 생기고, 계속 쭈욱 아벨같은 사람들로 이어져 아담교회, 태고교회가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었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도 이 적자생존, 생

존경쟁의 세상, 꼭 죽어야만 맛볼 수 있는 지옥을 굳이 죽지 않아도 맛보는 이런 세상 대신 천국이 지상에 내려온 그런 세상을 살고 있겠지요. 만일 그랬다면, 노아의 대홍수로 표현된 태고교회의 종말을 비롯, 이후 인류 역사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환란, 참상과 비극들도 없었겠지요. 주님이 인간의 의지를 건드리시고, 강제로 컨트롤하셨다면 말입니다. 인간에게 약간의 탈선 기미만 보여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전에 얼마든지 방지하실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어떤 선택에 간섭하지 않으시듯 그때에도 가인이라는 사람들의 일어남을 막지 않으셨고, 그들이 주님 사랑 대신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대신 세상 사랑을 선택할 때도 그들의 선택을 훼방하거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의지, 인류의 선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허락, 허용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원함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며, 사랑 아닌 것은 사랑이신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두 가지, 자유와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인류는 그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모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며, 본인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상응(相應, *correspondence*, 지상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든 것과 대응한다는 것)이 아닌, 기록된 그대로 실제 일어난 역사로 읽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말고 다른 제 삼자들의 갑작스런 등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4장까지는 아직은 등장 인물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뿐인데, 아벨은 죽었으니 아직은 지상에 오직 세 사람 뿐이 없어야 하니 말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가인이 말한,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가 나온다는 말인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명(人名)은 사실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 혹은 교리, 신앙의 이름입니다. 즉 아담하면 아담이라 하는 신앙을 가졌던 교회, 가인하면 가인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교회 등인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입장들이 주(主, 다수,

majority)가 됨으로써 이후 태고교회는 급격히 탈 천적화가 진행되고, 급기야 대홍수로 표현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탈 천적화라는 것은 점점 꺾데기만 남게 되었다, 외양만 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매우매우 은근하십니다. 비록 멸망이 예정되었어도 그안에 의인 열 명만 남을 때까지는 최대한 집행을 미루십니다. 혹시 돌이킬까 해서지요. 주님은 인류 전체에게나 한 개인에게나 최대한 시간을 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매사 무슨 계절의 변화처럼, 무슨 사람의 머리털이나 아이들 키 크듯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되 은은하게, 은근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신 건 가인이라는 사람들이 귀히 여겨 추구했던 신앙이지 그들의 악이 아닙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곧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능력, 곧 세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 관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퍼셉션이라 합니다. 이 퍼셉션은 천적 통찰력으로 지금도 천국은 이 퍼셉션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으로 가득하며, 천적 존재들은 이 퍼셉션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은 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적 지혜, 곧 주님께 관한 것을 알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존재들이며,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지혜, 천적 지혜를 구하되 주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그러므로 정확하게 악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걸 통해서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악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들은 바로 이런 캐릭터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지혜, 곧 신앙이지요, 주님께 관한 지혜를 잘 정돈, 정리한 것이 교리요 신앙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이 신앙은 순결한 신앙입니다. 가인들이 비록 악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신앙에 뭔가를 섞거나 건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신앙이 좋은 거, 귀한 것은 알아 추구를 하되 사랑 없이 추구한 게 문제이지만

요. 헛된 추구를 한 것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지혜는 오직 사랑이라는 그릇에만 담기는데, 이들은 사랑 없이도 신앙을 추구하여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사랑, 오직 체어리티라 하는 이웃 사랑 안에서만 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어리티라 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가 주님을 일대일, 개인대 개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걸 말하기 때문인데,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지상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생적 연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인의 후예로 흐를 것을 아시고, 가인이 붙든 신앙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치 식량이 다 떨어져가도 절대 이듬해 쓸 씨앗은 안 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어획량이 적어도 절대 치어들까지 마구 잡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인이 꺾 쥐고 추구한 신앙 그 자체는 이후 세대, 나중 인류를 위한 소중한 불쏘시개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인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아무

‘주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실까?’

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건드린다는 건 순수한 신앙, 잘 정돈된 교리에 뭔가를 섞어 변질되게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신성모독이 되며,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그때는 주님 조차 어떻게 수습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속 사람, 곧 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인데, 자신의 영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조차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나의 선택과 내 의지로 내가 내 영에 해를 가했는데 그걸 주님이 그냥 눈 감아 주고 그러시면 그건 주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그때부터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가지 못하도록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정말 필사적으로 막으시지만... 아무리 그러셔도 정작 사람이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자해 행위를 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인의 신앙을 보호하신 것이지 가인의 악을 눈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신앙 그 자체는 그때까지 인식, 지각한 주님에 대한 가장 정묘한 모든 진리를 교리화한 것이어서 참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사랑은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담과 아벨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 이런 주님 신앙이 자동적으로 담겼다면, 가인은 주님 사랑엔 시큰둥, 오직 신앙만 추구한 결과 둘 다 놓치고 결과적으로 악인이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가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고자(鼓子, *eunuch*) 이야기(마19:12)로 말씀하셨다 스베덴보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제가 좀더 역량이 되어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필요하면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 부분은 밝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단, 이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가인이라는 자들의 위험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할 도리, 곧 체어리티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2-07-17(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